

“중국 기업들 광양만권 오세요”

광양경제청 온라인 투자 설명회 中 강소성 무석시 10여 곳 관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중국 강소성 무석시와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광양만권 투자환경 홍보 및 중화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

광양경제청과 중국 최대 로펌인 잉커법무법인 한국지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강소성 무석시의 제조기업 1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광양경제청은 e모빌리티, 전동기 분야 등의 중국 제조기업이 광양만권 세풍산단 항만배후부지와 하동 대송산단 외국인투자 예정지역에 투자할 경우 장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 중국 제조기업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안내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국 기업 대표들은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주목했으며, 향후 해외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에서 제조 후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면서 관심도를 높였다.



지난 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화권 온라인 투자설명회가 열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참석한 중국 기업인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입지로서의 광양만권 이점, 한국의 FTA 플랫폼과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성공사례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관계자는 “코로나19 대비, 온-오프라인 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양만권 투자환경을 홍보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 기관 및 기

업 등과 지속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해 코로나 종식 후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도 해외 지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온-오프라인 해외 투자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매실 가공품 수출 10만 달러 달성

매실호떡·황매실청 등 호떡...태국·호주 등 확대

순천 지역 특산품인 매실 가공품이 수출 10만 달러를 달성했다.

순천시는 잘 익은 ‘황매실’을 지역전략 가공식품으로 개발·상품화해 지난해 미국 유타리틀 LA직매장과 총판계약을 맺었다. 이후 황매실청을 비롯한 매실곤약젤리, 매실호떡(사진)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매실호떡은 올해 3월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 9

일까지 미국 수출을 위해 1만 5000개가 선적되면서 4회에 걸쳐 총 4만개가 수출됐다.

특히 황매실청은 맛과 향 등 품질을 인정받아 3개월마다 1500병씩 미국으로 수출하고 호주·태국까지 수출국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 2만5000달러에



서 올해 10만달러로 급격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황매실로 개발한 매실곤약젤리도 로컬푸드매장, 산앤산 등 국내 직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매실 생과도 유럽·동남아시아에 100톤을 수출하는 등 매실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매실 품질향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판로 다변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AI로 어르신 건강관리 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비대면 서비스

곡성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

곡성군은 ‘오늘건강’이라는 모바일 앱과 각종 장치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을 건강 스크리닝(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해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와 질환여부에 따라 혈압계, 혈당계 등이 지급된다.

건강관리 전담 담당자는 대상자들의 유형과 특성

에 맞춰 실천 목표(미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한 건강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군은 총 60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허약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제외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기에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고령자들의 노후 건강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1@kwangju.co.kr

구례군 ‘지방자치 혁신대상 ‘우수상’

구례군이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이 상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 자치·발전에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56개 지자체에서 100건 이상의 우수사례가 접수돼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구례군은 천은사 입장료 문제 해결, 지역발전 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구례형 교육자치 모델 구축, 군민 맞춤 현장 소통행정 추진, 주민참여 SNS 홍보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민·관이 협력해 현안을 해결해 좋은 평가



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 화합을 위해 소통에 중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했다”며 “군민과 만나고 연대해 더 좋은 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사랑상품권 ‘섬섬여수페이’ 새 출발

1월17일 재개...앱 운영 대행사 조폐공사 변경

여수시가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섬섬여수페이’ <사진> 앱 운영 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해 새롭게 출발한다.

여수시는 오는 31일 현행 ‘섬섬여수페이’ 앱 서비스를 종료한 뒤 내년 1월17일 신규 앱 서비스를 재개한다.

회원정보, 잔액 및 이력, 가맹점 정보 등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위해 16일간 서비스가 중단된다.

기존 앱에서는 이달 24일 충전이 마감되고 카드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앱상 개인별 충전 잔액은 신규 앱으로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7일 이후 반드시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신규 ‘섬섬여수페이’ 앱은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신규 앱을 내



려반아 회원가입 후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5일 이내 배송 가능하며, 카드 수령 전 충전도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장 뽑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7대 회장에 김철우 보성군수가 선출됐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사천시, 하동·남해군과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이다.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해 지자체 간 협력사업 연계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군수는 내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김 군수는 “동서 화합과 지역발전이라는 시대

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남중권을 광역경제·문화·관광권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대전환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보성군은 남해안권 공동협력사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농림수산업 협력, 행정 분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